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속에 2011년을 보내고 새해 주체101(2012)년을 맞이한다.

해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의 진군길에 오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는 승리의 기치였고 정신력의 원천이었다.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강성부흥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있다.

지난해에 우리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영결하게 된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였고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결출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적생애를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견결히 옹호고수되였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위력,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를 마련하여 주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에 이룩하신 최대의 공적으로 빛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민족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혁명하여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으며 김정일동지의 념원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지난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탄생 100돐을 선군대고조의 승리의 포성이 울리는 크나큰 경사로 가장 성대하게,가장 의의깊게 맞이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2012년의 자랑스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민적인 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혁명적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구들과 최전연초소들,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총횡무진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100년사가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력사로 빛나게 결속되게 되였다.

지난해에 인민생활대진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21세기 경제강국의 강력한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타올라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형 강국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희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의 대축전에 드리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서 일떠서고 새로운 대진군의 기치인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속에서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이 개건완비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 세기 표본으로 되는 현대화된 축산,양어,대규모과일생산기지들이 일떠선것은 우리 당의 강성부흥전략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다.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를 안고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전환적계선에 들어서게 되였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하게 된다.

나라의 전반적면모가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게 되였다.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화려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룡림과 대흥,회령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이 생겨났다.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기념비적인 무대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군중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졌다.

지난해에 위대한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품모가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였다.

정세는 긴장하고 복잡하였지만 령도자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민심은 언제나 순결하고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는 애도기간은 뜻과 정으로 맺어진 어버이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혈연적뉴대는 영원히 변함없는 가장 억센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우리 천만군민이 크나큰 비분을 안고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가식도 모르는 순결 무구한 단결의 눈물이며 이 세상 끝까지 당을 따르려는 불타는 맹세의 눈물이다.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닌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품모는 적들을 전롭게 하고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신 불패의 당과 군대,국가가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대를 이어 령도자를 총직하게 받드는 훌륭한 인민이 있는 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것이 새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모두가 지니게 되는 철의 진리이다.

올해 주체 101 (2012)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가야 합니다.수령님을 따라서 시작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은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적진군의 계속이다.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하고 장군님 따라 백승떨쳐온 우리 혁명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영원한 승리로 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새 100년 대진군의 희망의 표대는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사상이고 필승의 보검은 백두령장들의 담대한 배짱이며 공격방식이다.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자주의 길,선군의 길,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은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전진하는 조선의 국력을 떨치는 중대한 계기이며 하나의 사상,하나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을 과시하는 혁명적대축전이다.우리는 올해를 위대한 향도의 당을 따라 대를 이어 대고조력사를 계승해나가는 장엄한 총진군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지금 우리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2012년까지의 역사적단계의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우리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이것이 올해에 전당,전군,전민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김일성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단결의 위력이다.2012년은 위대한 수령,위대한 당을 따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다져온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일심단결의 해,불타는 총정의 해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받은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며 김정일동지의 전사,제자들이다.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한 아버지,영원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얼마나 숭고한 도덕관을 지닌 인민인가를 온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높은 정치사상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총정을 바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우리가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혁명의 만년재보이다.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유산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한다.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이 길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사회주의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라는 투철한 관점,누가 뭐라고 하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계승되는 가장 공고한 단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시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전당,전군,전민이 성새,방패가 되어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령도자와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는 진실한 인간,령도자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동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전당,전국,전민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와 함남의 불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대비약을 일으킬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었다.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유훈은 강성국가건설의 현 실태와 우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밝혀주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새로운 전환의 기치이다.함남의 불길에는 당이 준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는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제힘으로 세계에 솟구쳐오르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자기 고장,자기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어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커다란 은을 내게 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 좋은 경공업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자재를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으로 해결하며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현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식량문제를 푸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오늘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별방지대이건,산간지대이건 어디서나 알곡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와 우리 식의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업생산목표수행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들을 수요대로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가금기지들,대규모과수농장들과 양어기지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은 함남의 불길따라 새로운 100년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이다.우리는 어떻게 하나 긴장한 전력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전력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관리,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야 한다.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밭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금속

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하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철도부문에서는 나라의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비료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고 비닐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섬유,합성수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전략적로선이다.

우리는 최신식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련하의 창조기풍으로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야 한다.인민경제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새 기술,새 제품개발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우리 경제의 면모를 기술집약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나노기술,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나라의 귀중한 재사들인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과학연구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 해주어야 한다.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따라앞서자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교육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야 한다.문학예술 부문에서는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대고조의 벽찬 현실에 발을 붙인 생동하고 통속적인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청년들과 인민들이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들을 더 잘 갖추어주어야 한다.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체육을 생활화,습성화함으로써 부풀어오른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가장 우수한 우리의 문화와 도덕,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

리 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림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다. 만수대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치고 도시경영사업, 원림복화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선군시대 새로운 평양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게 도시형성과 건설을 진행하며 거리와 마을을 결정적으로 개명시켜나가야 한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이다.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 조선인민군창건 8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모든 군사정치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영웅적기상과 불패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 장병들과 함께 계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김정일동지의 군건설업적을 총대로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주체의 군건설위업이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전군에 김정은동지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선군의 총대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녕이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승리가 있다. 인민군대에서는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높이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맡겨진 작전전투임

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군, 조국통일의 결사대로 준비시켜야 한다.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린다면 즉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게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부대지휘관리를 강화하고 군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어 전군에 강철같은 군사규율과 정규화적면모,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중대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중대들을 쇠소리 쟁쟁한 전투대오로, 병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정든 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군민일치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단숨에》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천년, 만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튼튼히 다져주신 국방공업의 거대한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다.

지금 우리 당과 혁명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놓여있다. 오늘의 현실은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백두의 행군정신,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철저히 일관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은 오늘도 앞으로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우리는 전당을 령도자의 뜻을 무조건 따르려는 하나의 의지가 관통된 순결한 조직사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맞게 당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위대성이 힘있게 과시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실천으로 꽃피워나가는 당조직이 가장 힘있는 당조직이다.각급 당조직들은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김정일 동지의 강행군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를 가장 신속하게,가장 철저하게 관철해나가는 인민군대 지휘관들의 전투적기질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이다.당이 결심하면 지체없이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 일군,아무리 어려운 투쟁과업도 립체전으로 와닥닥 해제끼는 일군,무슨 일이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소한 손색도 없이 만년대계로 해놓는 일군이 오늘의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일군이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이것이 위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실천의 구호,량심의 구호이다.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는 높은 자각,모든 사업을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전개해나가는 확고한 관점,자기 당성을 인민앞에 검증받는다는 허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발양시켜나가는것은 올해 대진군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대중의 정신력이 모든것을 결정한다.조선은 결심하면 한다,이 철의 신념을 안고 남들이 보란듯이 최첨단설비들을 제힘으로 만들어낸 함남의 정신력,함남의 실천력을 구현해나가야 한다.도처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대중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단체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는다.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조선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높이 발휘된 기적과 혁신의 전통,혁명적락관주의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참다운 선군청년전위로 키워나가야 한다.청년들은 《조선청년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고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선군시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녀맹조직들은 녀맹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온 나라에 혁명적이고 고상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동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치게 하여야 한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이었으며 우리 대에 맡겨진 최대의 민족사적과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생을 바쳐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오늘 불멸의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조국통일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어있고 애국열의에 불타는 7천만 겨레가 있기에 민족의 세기적숙망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통일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애국의지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당국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여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나선 남조선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으로 되고있다.

지난해의 경제흐름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으며 반통일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6.15 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밝

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10.4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동족대결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것이다.

지난해에 국제적환경은 전례없이 복잡하였지만 우리 혁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장구한 기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선군조선의 국제적지위와 존엄을 비상히 높이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정의의 수호자이시였다. 지난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력사적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비장한 각오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새로운 대전군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신다.희세의 명장 김정은동지께서 우리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고 향도의 당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과 일심단결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발걸음은 선군승리의 힘찬 발걸음,강성부흥의 우람찬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이어져나갈것이다.

모두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년대,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자.